

諸病源候論의 中風에 관한 考察

김선영 · 정승현 · 임성우 · 신길조 · 이원철 *

A study on a term of "Jung Pung 中風" in 'Jae-Byoung-Won-Hu-Ron 諸病源候論'

Kim sunyoung · Jeong sunghyun · Lim seongwoo · Shin giljo · Lee wonchul

Dep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G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of "Jung Pung(中風)" mentioned in "Jae-Byoung-Won-Hu-Ron(諸病源候論)"

The conclusion would be summerized as follows.

1. "Pung Byoung(風病)" is a symptom that man was damaged by "Pung Chi(風氣)", which is a wide meaning inclusive of cloudiness of conscious, apasia and the limbs disorder of "Jung Pung(中風)", "Bi 痺symptom", "Yeuk Jeil Pung(歷節風)", the skin disease, psychopathy and leprosy.

2. In cause of "Jung Pung(中風)", this book was received the theory of invasion of "Pung Sa(風邪)" from outside claimed in "Nae Kyoung(內經)", "Kum Gaeu Yo Rak(金匱要略)", but in a viewpoint of "Hyeol Chi(血氣)", "Young Yui(營衛)" and "Bi Yui Heo Sil(脾胃虛實)", especially, insists on the weakness of "Bi Yui(脾胃)" function.

3. In the pathology of "Jung Pung(中風)", there was a recognition that symptoms appear following each "Jang Bu(臟腑)" invaded and changed by a way of "Kyoung Rak Jang Bu(經絡臟腑)", because "Pung Sa(風邪)" invades the space of the skin, disturbs the circulation of "Hyeol Chi(血氣)" in a inner and isn't given out in a outer.

4. Thereare <Pung-Ok-Hu(風癱候)>, <You-Pung-Hu(柔風候)>, <Pung-Bi-Hu(風痺候)>, <Pung-Yoi-Tae-Hu(風腓退候)>, <Pung-Pyon-Go-Hu(風偏枯候)>, <Pyon-Pung-Hu(偏風候)> in the symptoms of "Jung Pung(中風)" and <Pung-Kyoung-Hu(風瘕候)>, <Jeok-Pung-Hu(賊風候)>, <Pung-Bi-Hu(風痺候)>, <Pung-Seyp-Bi-Hu(風濕痺候)>, <Pung-Kyoung-Hu(風驚候)>, <Pung-Kaong-Byong-Hu(風狂病候)>, <Da-Mang-Hu(多忘候)> in the similar symptoms of "Jung Pung(中風)".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教室

5. The principle of treatment is "getting sweating, helping the insufficient energy and diminishing the sufficient energy", but the prescription isn't mentioned and "Do-in Method(導引法)" was recorded after each symptom because of taking a serious view of "Bo-Yang-Sun-Do(補養宣導)"

6. The prognosis of "Jung Pung(中風)" is suggested in a view of pulse diagnosis, symptoms and is bad in case of appearance of no sweating, rigidity, vomiting a bubble and apasia.

I. 緒 論

《諸病源候論》은 隋代 巢元方의 著述로서 각종 질병의 병인병리를 구체적으로 논술한 병리전문서이다. 이 책의 특징은 질병을 67門으로 나누고 1729種의 질병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隋나라 以前의 각종 질병의 증후를 분류하여 체계화하였다는 점이다.

疾病의 분류는 內科病, 五官病, 皮膚病, 産婦人科病, 小兒科病의 순서로 배열하고, 內科病에서는 虛勞病, 熱性病 등의 全身性 및 大病에 속하는 질환을 앞에 두고, 證候特徵 및 臟腑系統에 근거하여 각종 질병을 후술하였다.

병인병리는 《內經》의 이론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논술하였으며, 치료는 원칙만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치료법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특징적으로 導引法을 소개하였다."

中風은 《內經》에서 최초로 "薄厥, 大闕, 偏枯, 偏風, 身偏不用 및 風痲"의 질환으로 기술하였는데, 운동장애와 의식장애가 주요증상이었다.

"中風"이라는 용어는 《金匱要略》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中風의 證, 因, 脈, 治를 설명하였으며 증상은 보다 확대되어 언어장애를 포함하여 인식되었다. 《內經》과 《金匱要略》은 모두 "內虛邪中"의 관점에서 外風을 그 원인으로

인식하여 "祛風發汗" 위주의 치료법이 제시되었다."

《金匱要略》이후 많은 의서들이 散失되었으나 散失된 의서들의 내용이 대부분 《諸病源候論》에 수록되어 이 책을 통해 隋나라 以前의 醫論을 고찰할 수 있다. 특히 《風病諸候》에서 風病을 總60候로 분류정리하고 각 증후의 병인병리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여 後代의 中風 병인병리학에 미친 영향이 크다.

이에 著者は 《諸病源候論》의 《風病諸候》에 서술된 中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醫史學的 背景 및 특징

兩晉에서 隋唐에 이르기 까지 醫學發展上 특징은 경험의 축적에 따른 질병인식의 확대, 方劑의 발달 및 本草學 등의 방면에서 큰 진보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진단 및 기본 이론은 뚜렷한 발전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科學技術方面의 미발달 때문이지만 직접적으로는 宗教 迷信의 풍조가 성행한데 연유가 있다."

《諸病源候論》은 隨代의 醫家인 巢元方에 의

1) 洪元植 :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4, pp.123-125.
2) 張仁圭 : 中風의 病因論에 관한 文獻的 考察, 大韓韓醫學會, 서울, 2(1), 1963, p.63.
3) 洪元植 : 上揭書 p.108. p.109.

해 지어진 醫書이며, 巢元方은 隋 大業中(서기 605~616년)에 태의박사로 임명되었다는 기록 외에 구체적인 경력은 알 수 없으며, 다만 《諸病源候論》을 편성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⁴⁾

《諸病源候論》은 《隋書·經籍志》에 책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는데, 隋唐이후 宋代에 이르기 까지 2種의 《諸病源候論》이 있었는데, 하나는 著者가 吳景賢이고 하나는 巢元方이다. 이 책의 著者에 대해 宋代이후 吳氏書는 散失되고 巢氏病源論만 전해졌다는 설과, 하나는 이 書가 巢氏와 吳氏가 공동으로 집필했다는 설이 있다.⁵⁾

《諸病源候論》은 巢氏病源이라 간칭하며 내용은 주로 각종 疾病의 病因, 病理와 病變 등에 대한 論술이다. 疾病을 67門으로 나누고 1729種의 諸病을 論술한 최초의 병리전문서이며, 隋나라 이전과 당시의 각종 諸病의 證후를 정리하여 분류체계화 시켰다. 치료면에서 “湯熨針石 別有正方”이라 하여 당시에 方書가 普遍流行하여 처방을 중복하지 않았으며, 각종 諸病의 뒤에 대부분 導引法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補養宣導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⁶⁾

《漢書·藝文志》에서 《隨書·經籍志》에 이르기까지 記載된 醫學書籍이 三百餘種 五千三百卷 이상이지만 대부분 산실되고 그 중 일부만 보존되어 전해지기 때문에 《諸病源候論》은 中國 7世紀初의 매우 가치있는 醫書로 隋나라 以前의 醫學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文헌이다. 또한 1729種의 證후를 상세하게 묘사하였고 합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론을 밝혀, 唐以後의 醫家들이 病理를 논할 때 《諸病源候論》을 소재로 하여 病리를 발전시켰다.⁷⁾ 특히 王燾의

《外臺秘要》에서 《諸病源候論》의 분류항목을 그대로 따르고 각 證후마다 《諸病源候論》과 《千金方》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宋代 宋綬의 序文을 보면 《諸病源候論》에서 證후의 總證理와 形, 脈, 證, 治의 구비를 인정하였고, 《四庫全書總目》에서는 證治理論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導引法의 근거에 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淸의 周學海는 隋唐나라 以前 醫家의 理論을 고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⁸⁾

2. 構成 및 原文 研究方法

《諸病源候論》은 〈風病諸候〉를 책머리에 두고 風病을 논하고 있는데, 이는 “風者 百病之長”의 意義가 내포된 것이며, 眞中風 및 類中風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⁹⁾ 記載된 證候는 總60候로서, 공통적인 특징은 대부분 卒急之證이며 변화가 심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危重하다는 것이다.

風病諸候는 一, 二兩卷으로 포괄되어지며 第一卷은 29證候, 第二卷은 31證候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第一卷에 나타나는 風病의 病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中風, 風癱, 風口噤候, 風舌強不得語候, 風失音不語候, 風角弓反張, 風喎候, 柔風候, 風痲, 風痲, 偏枯, 半身不隨, 風身體手足不隨候, 偏風候, 風不仁候, 賊風候, 風濕候, 風痺曳候, 風眼退候 등은 오늘날 中風의 概念에 포함되는 證후이며 中風의 前兆症, 急性期의 證象 및 恢復期의 後遺症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4) 傅維康：中國醫學史，上海中醫學院，북경，1990，pp.197-198.

5) 洪元植：上揭書 p.123.

6) 洪元植：上揭書 p.123. p.124. p.125

7) 南京中醫學院校釋：諸病源候論校釋，人民衛生出版社，북경，1983，p.4.

8) 南京中醫學院校釋：上揭書. p.4.

9) 丁光迪：諸病源候論校注，人民衛生出版社，북경，1991，p.1.

다.

2) 風痺候, 風濕痺候, 風四肢拘攣不得屈伸候, 風痺手足不隨候, 風濕痺身體手足不隨候, 血痺候 등은 痺症에 대한 서술이며, 中風과 감별하여 인식되지는 않았고 주로 種類, 病因病理에 대해 서술되어져 있다.

3) 風驚候, 風驚邪候, 風驚悸候, 風驚恐候 등은 정신장애의 기술로서 앞의 두 분류와 크게 다르다.

第二卷에 나타나는 風病의 病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歷節風, 風身體疼痛候, 風入腹拘急切痛候 에서 疼痛性 疾患의 原因과 증상에 대해 서술하였다.

2) 刺風, 蠱風, 隱疹, 風痒, 疥癩 등은 風邪가 皮膚肌肉에서 발생시킨 皮膚질환이다.

3) 風冷, 風熱, 風氣 등은 風邪가 挾寒熱하여 유발되는 증상에 대한 기술이다.

4) 頭面風候, 風頭眩候, 風癩候, 五癩候, 風狂病候 등은 風이 腦를 침입하여 발생한 증후로 風癩候, 五癩候, 風狂病候는 정신장애에 해당된다.

5) 惡風候, 諸癩候, 烏癩候, 白癩候 등의 증후는 皮膚肌肉의 병변으로 癩病에 대한 설명이다.

6) 多忘候, 風經五臟恍惚候, 鬼邪候, 鬼魅候 등의 증후는 風病諸候上의 風驚候, 風驚邪候, 風驚悸候, 風驚恐候에 이어져 정신장애에 대한 논술이다.

7) 風邪候에서는 風邪의 概念과 原因, 症狀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原文은 大星文化社의 巢氏諸病源候論¹⁰⁾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註釋 및 解說은 諸病源候論校釋¹¹⁾, 諸病源候論校注¹²⁾를 참고로 하였다.

著書에서 언급된 內經의 원문 이해를 위해 黃帝內經素問¹³⁾, 黃帝內經靈樞¹⁴⁾를 참조로 하였다.

本論에서는 <諸病源候論>의 <風病諸候>에 수록된 원문중에서 오늘날의 中風의 의미와 유사성을 가지는 원문을 선별하여 기재하였으며 각 증후를 概念 病因, 病機, 分類, 證候, 類似證候, 治療 및 豫候로 나누어 해석을 하였다.

3. 風病諸候의 分析

1) 中風의 概念

中風候(1)

【원 문】

中風者 風氣中于人也 風 是四時之氣 分布八方 主長養萬物 從其鄉來者 人中少死病 不從其鄉來者 人中多死病

其爲病者 藏于皮膚之間 內不得通 外不得泄 其入經脈 行于五臟者 各隨 臟腑以生病焉

【해석연구】

이 조문은 中風의 개념, 발생원인과 四時 자연현상의 차이에 따른 예후 및 병리기전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中風은 사람이 바람기운을 맞은 것이다. 風은 四時氣候의 자연적 현상으로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에서 불어와 각종 생물을 生長滋養한다.

“其鄉”은 風의 정상방위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봄은 東風, 여름은 南風, 가을은 西風, 겨울은 北風이다. 따라서 “從其鄉來者”라는

10)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大星文化社, 1992, p.8-28.
11) 南京中醫學院; 諸病源候論校釋, 人民衛生出版社, 북경, 1983, pp.19-88.
12) 丁光迪; 上揭書, pp.1-85.
13) 楊維傑; 上揭書, pp.20-33, 234-333, 250-256, 320-327, 455-466.
14) 郭霽春; 黃帝內經靈樞, 一中社, 서울, 1992, pp.389-390, 484-500, 508-517.

것은 節氣에 알맞은 방위에서 불어 오는 바람을 지칭하며 이때는 질병이 발생하여도 예후가 양호하여 죽거나 병드는 일이 적은데 비해 “不從其鄉來者”는 節氣에 상대되는 방향에서 바람이 부는 때는 질병이 발생하면 대부분 예후가 불량하여 죽거나 병드는 일이 많다.

中風의 發生機轉에 대해서는 《素問·風論》¹⁵⁾의 “風氣藏皮膚之間 內不得通 外不得泄”이라고 서술된 侵入狀況에 “其入經脈 行于五臟者 各隨臟腑以生病焉”라고 설명을 더욱 상세히 하였다.

風邪候(45)

【원 문】

風邪者 謂風氣傷于人也 人以身內血氣爲正外風氣爲邪 若其居處失宜 飲食不節 致臟腑內損血氣外虛 則爲風邪所傷

故病有五邪 一曰中風 二曰傷暑 三曰飲食勞倦 四曰中寒 五曰中濕 其爲病不同

風邪者 發則不自覺知 狂惑妄言 悲喜無度 是也

【해석연구】

이 조문은 두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難經》에서 나타나는 “五邪”에 대해, 다른 하나는 “風邪”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¹⁶⁾

風邪는 風氣로 인한 모든 질병에 대한 명칭이며, 人體의 血氣 즉 正氣, 外感의 風氣가 곧 邪氣라고 말하면서, 風病은 居處가 일정치 않고 飲食不節하여 內에서 臟腑가 손상됨에 따라 外部의 血氣가 虛하게 되어 風邪가 침입하여 발생된다고 설명하였다.

風邪는 發病時 知覺을 상실하여 言行狂亂, 喜悲無度의 특징이 있다. 《諸病源候論》에서는 疾病을 誘發하는 邪氣에 따라 中風, 傷暑, 飲食勞倦, 中寒, 中濕의 五種으로 분류하였다.

2) 風氣의 意味

風冷候(35)

【원 문】

風冷者 由臟腑虛 血氣不足 受風冷之氣 血氣得溫則宜流 冷則凝澁 然風之傷人 有冷有熱 若挾冷者 冷 折于氣血 使人面青心悶 嘔逆吐沫 四肢痛冷 故謂之風冷

【해석연구】

《素問·風論》¹⁷⁾에서 “風之傷人也 或爲寒熱 或爲熱中 或爲寒中 或爲癘風 或爲偏枯 或爲風”으로 風病의 다양성을 설명하였듯이, 《諸病源候論》에서도 風이 寒, 熱을挾하여 나타나는 증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風冷이란 “찬바람”을 말하는 것이며, 病理機轉은 본래 臟腑虛弱하고 血氣가 부족한 素因을 가진 자가 風冷之邪의 영향을 받아 冷氣를挾하면 氣血을 冷折하여 血氣의 運行이 凝澁하게 되어 “面青心悶, 嘔逆吐沫, 四肢痛冷”의 症狀이 나타난다고 기술되어 있다.

風熱候(36)

【원 문】

風熱病者 風熱之氣 先從皮膚入于肺也. 肺爲五臟上蓋 候身之皮毛. 若膚腠虛 則風熱之氣 先傷皮毛 乃入肺也. 其狀 使人惡風寒哉 目欲脫 涕唾出. 候之三日內及五日內 目不精明者是也. 七八日微有青黃膿涕如彈丸大 從口鼻內出 爲善也. 若不出 則傷肺 變咳嗽唾膿血也.

【해석연구】

風熱病은 風熱之氣가 皮膚를 통해 肺에 침입하여 惡風寒, 眼球作脹 및 流涕唾涎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그 증상은 3-5일내에는 眼睛視物이 맑지 못하고 7-8일에 이르러 青黃色의 膿涕가 口鼻로 排出되는 데 이것은 病情이

15) 楊維傑 : 上揭書 p.320.

16) 丁光迪 : 上揭書, pp.64-65.

17) 楊維傑 : 上揭書 p.320.

비교적 양호한 증후이다. 만일 膿涕가 排出되지 않고 다시 肺를 傷하게 되면 傳變되어 咳嗽唾膿血의 증상이 발현된다.

風氣候(37)

【원 문】

風氣者 由氣虛受風故也 肺主氣 氣之所行 循經絡 榮臟腑 而氣虛則受風 風之傷氣 有冷有熱 冷則厥逆 熱則煩惋 其因風所爲 故名風氣

【해석연구】

氣虛한 상태에서 風邪의 침입을 받기 때문에 風氣라고 표현하며, 風氣는 冷熱을挾하여 침입하는 데 冷하면 厥逆, 熱하면 心煩胸悶의 증상이 나타난다.

風冷, 風熱은 인체가 氣虛하여 저항력이 약한 때 발생하는 증후로서 冷, 熱은 모두 風과 동반되어 질병을 일으키므로 風氣라고 通稱한다. 따라서 風氣는 風과 동반하여 침입한 邪氣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3) 中風의 分類

中風候(1)

【원 문】

心中風 但得偃臥 不得傾側 汗出若臂赤汗流者 可治 急灸心俞百壯. 若臂或青或黑或白或黃 此是心壞爲水 面目亨亨 時悚動者 皆不可復治 五六日而死

肝中風 但踞坐 不得低頭. 若繞兩目連頰色微有青 臂青 面黃者 可治. 急灸肝俞百壯. 若大青黑 面一黃一白者 是肝已傷 不可復治 數日而死.

脾中風 踞而腹滿 身通黃 吐鹹水 汗出者可治 急灸脾俞百壯. 若手足青者 不可復治

腎中風 踞而腰痛 視脅左右 未有黃色如餅 藥大者可治 急灸腎俞百壯 若齒黃赤 鬢髮直 面

土色者 不可復治

肺中風 偃臥而胸滿短氣 冒悶汗出 視目下鼻上下兩邊 下行至口 色白可治 急灸肺俞百壯 若色黃 爲肺已傷 化爲血 不可復治 其人當妄掇空指地 或自拈衣尋縫 如此數日而死

【해석연구】

《素問·風論》¹⁸⁾에 五臟風의 개념, 병리기전 및 형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五臟風은 五臟을 四時에 대응하여 風에 傷한 시기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五臟風의 形狀은 五行의 특성과 연결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문의 五臟中風은 “藏于皮膚之間 內不得通 外不得泄 其入經脈 行于五臟者 各隨臟腑以生病焉”라 하여 風邪가 傳變되어 五臟의 臟腑 및 經絡 계열의 병리를 보이고 있어 《內經》의 의미와는 다르다. 또한 그 내용은 후세의 中風과도 달라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 증후를 五臟에 歸納한 독특한 論述로서 臨床에서 참고할만 하다.¹⁹⁾

心中風은 반듯이 눕기는 해도 옆으로 눕지 못하며 땀이 나면서 입술이 붉으면 치료가 가능하므로 급히 心俞穴에 灸法을 시행하고, 입술이 푸르거나 희거나 누르면 “心潰爲水”라고 하는 데 이는 心絶하여 水가 乘한 것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面目亨亨 時悚動”은 顔面의 呆滯를 표현한 것으로 顔面의 活動 表情이 없으며 肌肉이 시시로 떨리고 두려워 놀라는 모양으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치료가 어렵다.

肝中風은 움크리고 앉으나 머리를 숙이지 못하며 양쪽 눈과 이마의 안색이 약간 푸르며 입술이 푸르고 얼굴이 누르면 치료가 가능하며 급히 肝俞穴에 灸法을 시행하고 만일 청색이 심하고 얼굴이 누르거나 희게 될경우는 예후가

18) 楊維傑：上揭書，p.323.

19) 丁光迪：上揭書，p.4.

불량하다.

脾中風은 응크리고 앉으며 배가 그득하고 몸전체에 황달이 나타나고 鹹水를 嘔吐하고 땀이나는 경우 치료는 급히 脾俞穴에 灸法을 시행하고 手足에 청색이 나타나면 예후가 불량하다.

腎中風은 응크리고 앉으며 허리가 아프고 兩脅을 살피 황색이 나타나지 않으면 치료가 가능하여 腎俞穴에 灸法을 시행하고 만약 치아가 황적색을 띠고 수염이 곧고 면색이 흑색을 띠면 예후가 불량하다.

肺中風은 바르게 누워 가슴이 그득하고 호흡이 빠르며 頭目이 어지럽고 맑지 못하며 땀이 흐르고 눈아래, 코의 上下 兩邊에서 입술까지 백색이 나타나면 치료가 가능하여 肺俞穴에 灸法을 시행하고 만약 황색이 나타날 경우 예후가 불량하다.

風癱候(2)

【원 문】

風邪之氣 若先中于陰 病發于五臟者 其狀奄忽不知人 喉裏에 애聲 舌強不能言 發汗 身軟者 可治 眼下及左右白者可治 一黑一赤 吐沫者 不可治 汗不出 體直者 七日死.

【해석연구】

이 조문은 意識障礙, 痰盛 및 言語障礙의 發生機轉과 豫後를 설명하였다.

癱은 “懿”라고도 하며 갑자기 昏倒하여 舌強해서 말하지 못하고 喉中에 阻塞感과 痰鳴音이 있는 증후로서²⁰⁾ 意識障礙와 言語障礙 및 심한 경우 呼吸障礙까지 유발될 수 있다.

《素問·金 眞言論》²¹⁾에서 기술된 “夫言人之陰陽 即外爲陽 內爲陰. 言人身之 臟腑中陰陽 即臟者爲陰 腑者爲陽”의 표현에 근거하여 “先

中於陰”은 風邪가 裏에 直中한 것이며 裏는 곧 五臟을 이른다. 따라서 風邪가 먼저 陰經에 侵入하여 五臟에 병변이 발생하게 되면 突然 昏迷하여 주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喉中에서 氣가 逆上하여 癱瘓 소리가 나며 혀가 굳어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內經》에서 “風癱”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고 《千金方》에서 “風懿”라고 하여 “忽然不知人 喉中塞窒窒然 舌強不能言 病在臟腑 先入陰後入陽 治之 先補於陰 後瀉於陽 發其汗 身軟者生 汗不出 身直者 七日死”로 설명되어 있다. 《諸病源候論》의 증상과 예후에 대한 설명에서 보다 발전하여 “先補於陰 後瀉於陽”의 治法에 대한 언급이 보여진다.

柔風候(9)

【원 문】

血氣俱虛 風邪并入 在于陽則皮膚緩 在于陰則腹裏急. 柔風之狀 四肢不能收 裏急不能仰.

【해석연구】

이 조문에서 柔風의 개념과 원인 및 발생 기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不得俯仰”은 《外臺秘要》²²⁾에서 “裏急不得伸息者”라고 기재된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柔風은 四肢가 弛緩되고 고개를 들어 호흡을 하지 못하는 증후이다. 柔風의 發生機轉은 血氣가 虛할 때 風邪가 陽에 침입하여 表가 弛緩되고 陰에 侵入하여 裏가 急하게 되어 발생된다고 설명되어진다.

柔風은 四肢麻痺와 더불어 呼吸困難이 나타나는 증후로서 中風의 범주에서 볼 때 延壽장에서 球麻痺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 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延壽가 직접장애를 받아 球麻痺를 보이는 일은 적다. 대부분 假性麻痺로

20) 金賢濟, 洪元植: 韓醫學辭典, 成輔社, 1990. p.473.

21) 楊維傑: 上揭書 p.37.

22) 王 蕪: 外臺秘要, 文光圖書有限公司, 대만, 1988, p.395.

양측 설인신경, 미주신경 및 설하신경의 핵상성 장애로 일어나는 증후와 연결시켜 볼 수 있다.

風痺候(10)

【원 문】

風痺之狀 身體無痛 四肢不收 神智不亂 一臂不隨者 風痺也 時能言者 可治 不能言者 不可治

【해석연구】

이 조문은 風 의 개념과 예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靈樞·熱病編》²³⁾에서 “痺之病也, 身無痛者, 四肢不隨, 智亂不甚. 其言微知 可治 甚則不能言, 不可治也”라 하여 風 의 증상과 예후가 언급되어져 있는데 《諸病源候論》에서는 “一臂不隨”의 증상이 첨가되어 있다.

風痺의 증상에 관해 古書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靈樞·熱病編》²⁴⁾에서는 “四肢不收 智亂不甚”, 《千金要方·風痺門》에서는 “夫風痺者 卒不能語 口噤 手足不遂而強直者是也”로 설명되어 있다. 이는 記述上의 오류이거나 증상의 輕重에 의한 차이로 볼 수 있다.

風痺는 身體에 痛症이 없는 四肢痲痺의 증상으로, 혹 一側으로 單痲痺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意識障礙는 없으며 言語障礙가 나타나면 治療가 어렵다고 하였다.

風脹退候(11)

【원 문】

風脹退者 四肢不收 身體疼痛 肌肉虛滿 骨節懈怠 腰脚緩弱 不自覺之是也. 由皮肉虛弱 不勝四時之虛風 故令風邪侵于分肉之間 流于血脈之內 使之然也. 經久不瘥 即變水病

【해석연구】

이 조문은 風 退의 症狀과 病理에 대해 설명한다.

脹退는 四肢痲痺, 身體疼痛, 肌肉浮腫, 腰脚無力 및 感覺鈍麻한 증상을 말한다. 皮肉이 虛弱한 상태에서 四時 虛風의 침습으로 발생하는데, 虛風의 의미는 五行學說에 의해 節氣를 克하는 시기의 바람을 말한다.

《靈樞·九宮八風編》²⁵⁾에서 “風從其所居之鄉來爲實風 主生 長養萬物. 從其庶後來爲虛風 傷人者也 主殺 主害者”라고 虛風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仲冬의 南風, 仲春의 西風, 仲夏의 北風, 中秋의 東風이 모두 虛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風偏枯候(12)

【원 문】

風偏枯者 由血氣俱虛 則腠理開 受于風濕 風濕客于反身 在分腠之間 使血氣凝澁 不能潤養 久不瘥 眞氣去 邪氣獨留 則成偏枯 其狀半身不隨 肌肉偏枯 小而痛 言不變 智不亂是也 邪初在于分腠之間 宜溫臥取汗 益其不足 損其有餘 乃可復也

診其胃脈沈大 心脈小牢急 皆爲偏枯

男子則發左 女子則發右

若不痛舌轉者 可治 三十日起 其年未滿二十者 三歲死 又左手尺中神門以後脈 足太陽經虛者 則病惡風 偏枯 此由愁思所致 憂慮所爲 其湯熨 針石 別有正方 補養宜導 今附于後

【해석연구】

이 조문은 偏枯의 발생기전과 症狀, 脈, 治法, 豫候, 男女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3) 郭霽春: 上揭書, p.209.

24) 郭霽春: 上揭書 p.209.

25) 郭霽春: 上揭書, pp.510-511.

偏枯의 증상은 《靈樞·熱病論》²⁶⁾에서 “偏枯 身偏不用而痛 言不變 智不亂 病在分腠之間”이라 하여 《諸病源候論》의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後代에 “肌肉枯瘦 骨間疼痛” 증상이 첨가되어 졌다.

偏枯는 偏側의 氣血이 虛하여 理의 저항력이 약한 때 風濕의 영향을 받아 偏側의 氣血運行이 방해되어 肌肉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 正氣는 쇠약해지고 邪氣만 왕성하게 되므로서 발생한다. 症狀은 偏側의 肢體運動이 不可能하며 肌肉이 萎縮되고 약간의 통증이 있으며 言語障礙나 意識障礙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偏枯는 편마비를 중심으로 “肌肉枯瘦” 등의 근위축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동반하나 “言不變 智不亂”에서 알 수 있듯이 失語와 失認을 동반하지 않는 증후로 뇌질환으로 인한 반신마비가 오래되었을 때 나타나는 無用性 萎縮의 상태로 보여진다.²⁷⁾

발병의 初期에는 邪氣가 肌肉과 理의 사이에 있으므로 濫臥取汗하고 益其不足 損其有餘의 적당한 치료를 한다.

일반적으로 男子는 左側에 女子는 右側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言語障礙가 나타나지 않으면 치료가 가능하고 발병연령에 따라 예후에 차이가 있다.

偏風候(15)

【원 문】

偏風者 風邪偏客于身一邊也 人體有偏虛者 風邪乘虛而傷之 故爲偏風也 其狀或不知痛痒 或緩縱 或痺痛是也.

【해석연구】

이 조문은 偏風의 개념과 증상에 대해 설

명하고 있다.

偏風은 身體의 一側이 虛하면 風邪의 侵襲이 용이하여 一側이 傷하게 되어 발생하는 증후이다. 症狀은 肌膚의 痛痒을 알지 못하는 感覺障礙가 나타나며 手足이 弛緩되어 運動障礙나 肢體疼痛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偏風은 半身不遂의 다른 이름으로²⁸⁾ 한쪽 肢體가 半身不遂가 되거나 隨意運動이 불가능한 증후로 久病人인 경우 患肢가 健側에 비해 枯瘦하고 麻木不仁이 되는 것으로 미루어 中風 後遺症 등의 질환에 속한다고 보여진다.

風痺曳候(16)

【원 문】

風痺曳者 肢體弛緩不收攝也 人以胃氣養于 肌肉經絡也 胃弱衰損 其氣不實 經脈虛 則筋肉懈惰 故風邪搏于筋 而使風痺曳也

【해석연구】

이 조문은 風 曳의 개념과 병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風痺曳는 肢體가 弛緩되어 收攝이 不可能한 증상을 말한다. 胃氣는 肌肉經絡의 영양을 공급하며 胃氣가 약해지면 經脈이 자연히 虛하게 되어 筋肉이 無力하고 軟弱하게 되는데 이때 風邪의 침습으로 筋을 상하게 되면 風痺曳候가 發生한다. 즉 평소 胃氣의 虛弱으로 筋肉懈惰한 사람이 風邪에 접촉되면 肢體가 弛緩되어 無力하고 運動이 不可能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證候는 筋肉의 運動障礙로서 筋肉弛緩性疾患으로 보여진다.²⁹⁾

4) 中風의 病理

中風의 전반적 病理는 “其爲病者 藏于皮膚之間 內不得通 外不得泄 其入經脈 行于五臟者

26) 郭霽春 : 上揭書, pp.209-210.

27) 李和峻 등 : 중풍증후의 동서의학적 비교고찰,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4(1), 서울, 1993, p.126.

28) 金賢濟 洪元植 등 : 上揭書 p.473.

29) 李和峻 등 : 上揭書 p.111

各隨臟腑以生病焉”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증후의 발생기전은 즉 언어장애, 운동장애 및 감각장애 등의 증상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1) 言語障礙

風失音不語候(5)

【원 문】

風寒客于會厭之間 故卒然無音 皆由風邪所傷 風失音不語

【해석연구】

音聲과 관련된 기관은 喉嚨, 會厭, 舌, 및 脣으로 風寒의 邪氣가 會厭 부위에 침입하여 破聲이 되어 갑자기 發音을 하지 못하게 된다.

風舌強不得語候(4)

【원 문】

脾脈絡胃 挾咽 連舌本 散舌下 心之別脈 繫舌本 今心脾二臟受風邪 故舌強不得語也

【해석연구】

中風不語에 대해 <金匱要略>³⁰⁾의 “邪入於臟 舌即難言 嘔吐涎”의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 “五臟”과 “舌難言”의 관계를 서술하였다.

五臟 중 “脾脈이 胃에 絡하고 咽喉를 따라 舌本에 연결”되며 “心의 別脈이 舌本에 연락”되어 心·脾가 손상되면 舌에 氣血이 도달하지 못하게되어 舌이 運動을 못하여 構語障礙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2) 運動障礙

柔風候(9)

【원 문】

血氣俱虛 風邪并入 在于陽則皮膚緩 在于陰則腹里急

【해석연구】

血氣가 虛할 때 風邪가 특히 四肢와 腹部에 침입하여 四肢가 이완되고 가슴을 펴고 호흡을

하지 못하는 증후이다.

風脹退候(11)

【원 문】

由皮肉虛弱 不勝四時之 虛風 故令風邪侵于分肉之間 流于血脈之內 使之然也.

【해석연구】

四時의 虛風이 皮膚·分肉之間에 침입하여 表部에서 氣血의 運行이 저체되어 발생된다.

風偏枯候(12)

【원 문】

由血氣俱虛 則腠理開 受于風濕 風濕客于反身 在分腠之間 使血氣凝滯 不能潤養 久不痊 眞氣去 邪氣獨留 則成偏枯

【해석연구】

血氣가 虛하여 인체의 저항력이 약한 때 風濕이 半身의 理에 머물러 氣血의 運行이 순조롭지 못하게 됨에 따라 正氣는 더욱 약해져 증상이 악화되어져 偏枯가 발생한다.

風身體手足不隨候(13)

【원 문】

由體虛腠理開 風氣傷于脾胃之經絡也. 足太陰爲脾之經 脾與胃合 足陽明爲胃之經 胃爲水穀之海也. 脾候身之肌肉 主爲胃消行水穀之氣以養身體四肢. 脾氣弱則肌肉虛 受風邪所侵 故不能爲胃通行水穀之氣 致四肢肌肉無所稟受 而風邪在經絡 搏于陽經 氣行則遲 關機緩縱 故令身體手足不隨也.

【해석연구】

手足不隨는 신체가 약하여 腠理가 열린 상태에서 風氣가 脾胃의 經絡에 침습하여 발생한다. 足太陰痺와 足陽明胃는 表裏를 이루고 脾의 外候는 肌肉이며 胃를 대신하여 水穀之氣를 運行하여 身體四肢에 營養을 공급한다. 脾氣가 약하면 肌肉이 虛한상태에서 風邪가 침습하므로 水穀之氣를 運行하지 못하게 된다.

30) 李正來：東醫要諦眞詮，廣林公社學術圖書，서울，1992，p.1269.

風邪가 經絡에 있고 陽經을 搏하여 氣의 運行이 느리고 肌肉關節이 弛緩되어 手足不遂의 증상이 나타난다.

風半身不隨候(14)

【원 문】

脾胃氣弱 血氣偏虛 爲風邪所乘故也. 脾胃爲水穀之海 水穀之精 化爲血氣 潤養身體. 脾胃氣弱 水穀之精 潤養不周 致血氣偏虛 而爲風邪所侵 故半身不隨也.

【해석연구】

上記의 風身體手足不隨候와 別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風痺曳候(16)

【원 문】

人以胃氣養于肌肉經絡也 胃弱衰損 其氣不實 經脈虛 則筋肉懈惰 故風邪搏于筋 而使痺曳也

【해석연구】

胃氣의 虛弱으로 肌肉經絡에 營養이 공급되지 못하여 筋肉이 약해진 상태에서 風邪가 근육을 침범하여 발생한다.

이상의 서술을 정리해 보면 運動障礙는 脾胃虛弱으로 血氣虛한 상태에서 風邪의 침습을 받아 血氣凝滯 不能潤養하여 발생되는데 각 증후에 따라 風邪의 침범부위가 皮膚腠理, 筋肉, 四肢, 腹部 등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感覺障礙

偏風候(15)

【원 문】

偏風者 風邪偏客于身一邊也 人體有偏虛者 風邪乘虛而傷之 故爲偏風也

【해석연구】

偏側이 虛하면 風邪가 虛한 부위를 따라 침범하므로 偏風이라고 한다.

風不仁候(17)

【원 문】

由榮氣虛 衛氣實 風寒入于肌肉 使血氣行

不宜流

【해석연구】

인체의 營氣가 虛하고 衛氣가 實한 상태에서 肌肉이 風寒에 접촉되어 氣血의 運行이 원활히 소통되지 못함으로써 皮膚의 감각이 저하되어진다.

(4) 頭痛, 眩暈

頭面風候(40)

【원 문】

是體虛 諸陽經脈爲風所乘也 諸陽經脈 上走于頭面 運動勞役 陽氣發泄 腠理開而受風 謂之首風

【해석연구】

모든 陽經은 頭面으로 上行하는데, 혹 運動勞役으로 陽氣가 發泄되어 頭面部的 皮膚汗孔이 열려 風邪의 침습으로 발생한다.

風頭眩候(41)

【원 문】

由血氣虛 風邪入腦 而引目系故也 入腦則腦轉而目系急 五臟六腑之精氣 皆上走于目 血氣與脈并于上系 上屬于腦 後出于項中 逢身之虛 則爲風邪所傷 入腦則腦轉而目系急 目系急 故成眩也.

【해석연구】

五臟六腑의 精氣는 모두 目으로 上走하는데 血氣는 脈과 함께 上走하여 腦에 속하고 項中으로 後出한다. 따라서 血氣가 虛하면 風邪가 침입하여 腦에 영향을 미쳐 腦轉하고 目系急하여 갑자기 目眩이 발한다.

(5) 口眼喎斜

風口噤候(3)

【원 문】

諸陽經筋 皆在于頭 手三陽之筋 結入于頰頰 足陽明之筋 上來于口. 諸陽爲風寒所客則筋急 故口噤不開也

【해석연구】

手足 三陽經筋은 모두 頭部에 分布하며

手太陽, 手少陽, 手陽明의 手三陽經筋은 모두 頰에 연결되어 있고 足陽明의 筋은 頸部에서 上行하여 口脣을 끼고 순행하는데 陽經이 風寒의 侵入을 받으면 頰, 頰, 口脣의 筋肉이 緊縮하여 口噤으로 입을 열지 못한다.

風口噤候

【원 문】

風邪入足陽明 手太陽之經 遇寒則筋急引頰

【해석연구】

風邪가 足陽明經과 手太陽經을 침입한 상태에서 寒氣를 만나면 근육이 긴급되어 頰을 당겨 발생한다.

이상에서 각 증후들을 병인병리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원인으로 血氣俱虛, 血氣偏虛, 血氣虛, 皮肉虛弱, 脾胃氣弱, 胃弱衰損, 人體有偏虛, 由營氣虛 衛氣實, 體虛 運動勞役 陽氣發泄 腠理開而受風을 제시하고 있다. 즉 血氣, 營衛, 脾胃의 내적조건이 虛한 상태에서 인체의 抵抗力이 弱하여 전체적 혹은 국소적으로 風寒과 같은 자극의 영향으로 각 증후들이 유발되어 진다고 생각된다.

5) 中風의 證候

(1) 前兆證

風不仁候(17)

【원 문】

風不仁者 其狀 搔之皮膚如隔衣是也 診其寸口脈緩 則皮膚不仁. 不仁 脈虛數者生 牢急疾者死.

【해석연구】

不仁은 肌膚가 麻木되어 각종의 皮膚感覺을 喪失한 증상이다. 脈象은 寸口脈이 緩하며 脈이 虛할 경우 치료가 가능하나 牢急疾한 脈이 나타나면 예후가 불량하다.

風不仁候는 中風 前兆證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中風의 前驅症狀은 고혈압, 동맥경화 등 뇌혈관장애의 전구질환들에 의한 말초동맥의

변화로 인해 인체의 말단부에 유발되는 감각장애나 운동장애증상들에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頭面風候(40)

【원 문】

頭面風者 頭面 多汗惡風 病甚則頭痛 又新沐中風 則爲首風 又新浴頭未乾 不可以臥 使頭重身熱 反得風則煩悶

診其脈 寸口陰陽表裏互相乘 如風在首 久不差 則風入腦 變爲頭眩.

【해석연구】

초기에 多汗惡風하며 頭痛이 발생하는데 심하면 頭重, 身熱 및 心胸煩悶의 증상이 수반되기도 한다. 풍사가 頭部에 있으면서 오래도록 병이 낫지 않을 경우 풍사가 腦中에 침입하여 頭眩이 발생한다.

風頭眩候(41)

【원 문】

風眩久不差 則變爲癩疾

【해석연구】

風眩이 오랫동안 낫지 않을 경우 轉變하여 癩疾이 發生한다.

(2) 言語障礙

【해석연구】

風舌強不得語候와 風失音不語候는 중풍의 후유증으로 올 수 있는 言語障礙의 범주에서 볼 수 있다.

(3) 運動障礙

風身體手足不隨候(13)

【원 문】

診脾脈緩者 爲風痿 四肢不用. 又心脈腎脈俱至 則難以言 九竅不通 四肢不舉 腎脈來多則死也

【해석연구】

脈象에서 脾脈이 緩한 것은 “風痿”로서 四肢의 運動障礙가 나타난다. 心脈과 腎脈이

모두 나타나게 되면 心腎에 모두 병이 이르러 言語障礙, 九竅不通, 四肢不舉의 증상이 나타나고 腎脈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경우 예후가 불량하다고 하였다.

風半身不隨候(14)

【원 문】

診其脈 寸口沈細 名曰陽內之陰 病苦悲傷不樂 惡聞人聲 少氣 時汗出 臂偏不舉. 又 寸口偏絕者 則偏不隨 其兩手盡絕者 不可治也.

【해석연구】

脈象은 寸口脈이 沈細하며 中風의 發生에 대해 悲傷不樂 惡聞人聲으로 少氣 時汗出 臂偏不舉하게 되고 寸口脈이 絶하면 증상이 심하여 偏身不遂하게 되고 兩側의 寸口脈이 絶한 경우는 예후가 불량하다.

4) 口眼喎斜

風口喎候(8)

【원 문】

言語不正 而不能平視.

【해석연구】

이 조문은 病理的으로 앞에서 서술한 風口喎論과 크게 차이가 없으며 “言語不正 而不能平視”의 본증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經筋과 口頰의 관계는 <風口論>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증후는 顔面神經麻痺와 中風 後遺症에 해당하며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와 반신불수 등을 동반하는 중추성 안면신경마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³¹⁾

6) 中風의 類似證候

風痙候(6)

【원 문】

風痙者 口噤不開 背強而直 如發癎之狀 其

重者 耳中策策痛 卒然身體硬直者 死也 由風邪傷于太陽經 復于寒濕則發痙也 診其脈 策策如弦 直上下者 風痙脈也

【해석연구】

風痙은 “口噤不開 脊強而直”의 증상이 발현되는 일종의 痙攣性 질환이다. 風邪가 太陽經을 침입하고 다시 寒濕이 침입하여 痙攣 증상이 발생하는데 귀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으면서 경련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치료가 어렵다.

風痙은 오늘날의 “痙病”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보여지며 이는 熱性病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背強反張, 口噤不開의 병증으로 볼 수 있다. 痙病은 六淫이 침습하여 化燥, 化風한所致로 즉 陽明熱이 盛하여 肝風을 일으킨 증후로서 熱이 盛하여 陰을 傷하거나 誤吐, 誤汗, 誤下 등의 津液이 소실되는 重病에서 유발되어진다.³²⁾

風角弓反張候(7)

【원 문】

風邪傷人 令腰背反折 不能俯仰 似角弓者 由邪入諸陽經故也

【해석연구】

오늘날 角弓反張은 病人의 頭項이 強直하고 腰背가 꺾혀져서 마치 角弓처럼 後向으로 彎曲된 것으로 風病 혹은 熱邪가 熾盛하여 動風하는 일종의 증상으로 驚風, 破傷風 및 多種病因에 의해 야기되는 뇌염 및 뇌막염 등에서 볼 수 있는 질환이다.³³⁾

角弓反張候의 증상에 대한 설명은 오늘날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원인에 대해 風邪가 陽經을 침입한 소치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31) 李和峻 등: 上揭書 p.127.

32) 金賢濟 洪元植: 上揭書 p.449.

33) 金賢濟 洪元植: 上揭書 p.449.

賊風候(18)

【원 문】

賊風者 謂冬至之日 有疾風從南方來 名曰虛風 此風至能傷害于人 故言賊風也 其傷人也 但痛不可得按抑 不可得轉動 痛處體卒無熱 傷風冷則骨解深痛 按之乃應骨痛也 但覺身內索索冷 欲得熱物熨痛處則小寬 時有汗 久不去 重遇冷氣相搏 乃結成瘰及偏枯 遇風熱氣相搏 乃變附骨疽也

【해석연구】

이 조문에서는 賊風의 개념과 증상 및 진단에 대해 설명하였다. 賊風은 中風諸候 사이에 錯簡으로 의심되며 後述 하는 風濕과 風痺의 제 증상이 서로 연관되어 비교적 약간의 관련성은 있다

賊風은 虛邪賊風의 약칭으로 虛風과 같은 의미이며 인체를 賊害하는 성질에 의해 명명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靈樞·賊風編》³⁴⁾에서는 “賊風 邪氣傷人也, 常有所傷于濕氣, 藏于血脈之中, 分肉之間, 久留而不去, 若有所墮墜 惡血在內而不去, 卒然喜怒不節, 飲食不適, 寒溫不時, 腠理閉而不通, 其開而遇風寒, 則血氣凝結 與故邪相襲, 則爲寒痺”라고 병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諸病源候論에서는 賊風의 증상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였다.

症狀은 동통이 심하여 만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며 아픈 부위에 熱感은 없다. 風冷에 傷하면 骨의 深部에서 동통이 있어 만지면 뼈를 뚫는 듯한 통증이 있으며 아울러 전신에 추위를 느끼고 아픈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완화되며 간혹 땀이 난다. 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는데다 冷氣의 침습을 받으면 을 형성하거나 혹 偏枯가 발생하고 風熱氣의

침습을 받으면 附骨疽가 발생한다.

賊風候의 증상을 살펴보면 中風의 의미에서 벗어나 오늘날 통풍, 하지부의 혈관염, 신경염, Buerger's disease의 증상에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³⁵⁾

風濕候(19)

【원 문】

風濕者 是風氣與濕氣共傷于人也 風者 八方之虛風 濕者 水濕之蒸氣也 若地下濕 復少霜雪 其山水氣蒸 兼值暖 腠退 人腠理開 便受風濕 其狀令人懈惰 精神昏慣 若經久 亦令人四肢緩縱不隨 入臟則痿啞 口舌不收 或脚痺弱 變成脚氣

【해석연구】

이 조문은 風濕의 개념, 병리 및 증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데 이 조문에서 설명하는 風濕과 일반적인 風濕은 차이가 있다.

風濕은 風氣와 濕氣가 함께 人體를 傷한 症狀으로 風은 八方の 虛風을 이르며, 濕은 水濕의 蒸氣이다. 地面이 濕하고 서리가 내려 山水의 濕氣가 盛한데 溫暖한 기후가 가해지면 인체가 연약하고 무력해지며 피부의 汗孔이 열리고 따라서 풍습을 감수하게 된다. 症狀은 사람이 倦怠無力하며 意識이 맑지 않고 昏悶한데, 병이 오래 지속되면 四肢가 이완되어 운동은 불가능하며 邪氣가 臟에 전변되면 失音, 口舌不收하고 혹 兩脚이 痺痛 弱하게 되어 脚氣病이 된다.

이 조문중 “水氣蒸 兼值暖 腠退”, “或脚痺弱 變成脚氣”의 표현으로 보아 風濕의 증상은 脚氣의 유사질환으로 볼 수 있으며 “入臟則痿啞 口舌不收”는 脚氣의 庶心證과 유사하며 《外臺秘要》에서는 이 조문을 脚氣 다음에 기재하고 있다.

34) 郭霽春：上揭書，p.309.

35) 全國韓醫科大學心系內科學教室：東醫心系內科學 上，書苑堂，1995，pp.507-530.

風痺候(20)

【원 문】

痺者 風寒濕三氣雜至 合而成痺 其狀 肌肉頑厚 或 疼痛 由人體虛 腠理開 故受風邪也 病在陽曰風 在陰曰痺 陰陽俱病曰風痺

其以春遇痺者爲筋痺 則筋屈 筋痺不已 又遇邪者 則移入肝 其狀 夜臥則驚 飲多小便數 夏遇痺者爲脈痺 則血凝不流 令人萎黃 脈痺不已 又遇邪者 則移入心 其狀 心下鼓 氣暴上 逆喘不通 噤乾 喜噉 仲夏于痺爲肌痺 肌痺不已 復又邪者 則移入脾 其狀 四肢懈惰 發咳嘔汁 秋遇痺者爲皮痺 則皮膚無所知 皮痺不已 又遇邪 則移入肺 其狀 氣奔痛 冬遇痺者爲骨痺 則骨重不舉 不隨而痛 骨痺不已 又遇邪 則移入于腎 其狀喜脹

【해석연구】

痺證은 風寒濕 三氣의 侵襲으로 발생된 증후로서 《諸病源候論》에서 風痺候를 보면 痺證의 한 類型이며 症狀은 “肌肉頑厚 或 疼痛”이다.

원인은 人體가 虛하여 腠理가 軟弱해진 상태에서 風邪의 侵入을 받은 소치로 病邪가 침입한 깊이에 따라 病邪가 陽에 있으면 風症이고, 陰을 침습하면 痺證이고, 陰陽을 모두 침습하면 風痺라고 風症, 痺症, 風痺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즉 風痺는 病邪가 表部에서 裏部로 전변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후이며 五痺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다.

따라서 風病諸候에 風痺가 수록된 것으로 보아 風痺를 넓은 의미의 풍에 포함하여 인식하였으나, 증풍과는 감별되었다고 생각된다. 唐代 《千金要方》에 이르러서야 “風痺, 濕痺, 周痺, 筋痺, 脈痺, 肌痺, 被痺, 骨痺, 包痺, 各有形證, 形如風狀 得別脈也 脈微澁 其證身體不仁”이라 하여 風과 명확하게 감별하여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風濕痺候(21)

【원 문】

風濕痺病之狀 或皮膚頑厚 或肌肉酸痛 風寒濕三氣雜至 合而成痺 其風濕氣多 而寒氣少者 爲風濕痺也 由血氣虛 則受風濕 而成此病 久不瘥 入于經絡 搏于陽經 亦變令身體手足不隨

【해석연구】

風濕痺는 “皮膚頑厚 或 肌肉酸痛”으로 즉 피부의 감각이상 或 肌肉에 통증이 있는 증상을 이르는 것이며 血氣가 虛할 때 風寒濕 三氣 중 風濕이 偏多한 경우에 발생한다. 病期가 오래 지속될 경우 皮膚에서 經絡으로 전변되어 사지의 운동마비가 나타난다. 이 症候는 장기간 지속시 四肢의 運動麻痺가 나타나므로 中風과 의 감별이 필요하다.

風四肢拘攣不得屈伸候(22)

【원 문】

此由體虛 腠理開 風邪在于筋故也 春遇痺爲筋痺 則筋屈 邪客關機 則邪筋攣 邪客于足太陽之絡 令人肩背拘急也 足厥陰肝之經也 肝通主諸筋 王在春 其經絡虛 遇風邪則傷于筋 使四肢拘攣 不得屈伸診其脈 急細與弦者 筋急足攣也 若筋痺不已 又遇邪 則移變入肝 其病狀 夜臥驚 小便數

【해석연구】

이 證候는 五痺 中 특히 風邪가 筋에 침범한 肝痺의 증후에 대한 설명으로 肝痺에서도 四肢拘攣不得屈伸의 증후가 나타나므로 中風과 감별하여야 한다.

風痺手足不隨候(23)

【원 문】

風寒濕三氣 合而成痺 風多者 風痺 風痺之狀 肌膚盡痛 諸陽之經 盡起于手足 而循行于身體 風寒之客肌膚 初始爲痺 後傷陽經 隨其虛處而停滯 與血氣相搏 血氣行則遲緩 使機關弛縱 故風痺而手足不隨也

【해석연구】

風寒이 肌膚에 侵入한 初期를 痺라 하는데, 病期가 오래되어 陽經을 손상하게 되면 風寒이 침입하여 血氣의 運行이 遲延되어서 關節이 이완되어져 手足不遂하게 된다.

이 조문은 痺證으로 인해 手足不遂가 일어나는 병리에 대한 설명이다.

風濕痺身體手足不隨候(24)

【원 문】

風寒濕三氣 合而成痺 其三氣時來 亦有 偏多偏少 而風濕之氣 偏多者 名風濕痺也 人腠理虛者 則由風濕氣傷之 搏于血氣 血氣不行 則不宜 眞邪相擊 在于肌肉之間 故肌膚盡痛 然諸陽之經 宜行陽氣 通于身體 風濕之氣 客在肌膚 初始爲痺 若傷諸陽之經 陽氣行則遲緩 而機關弛縱 筋脈不收攝 故風濕痺而復身體手足不隨也.

【해석연구】

이 증후 또한 風痺手足不隨候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상 風痺候, 風濕痺候, 風四肢拘攣不得屈伸候, 風痺手足不隨候, 風濕痺手足不隨候에서는 痺證의 症狀에 대해 언급되어져 있으나, 痺證 또한 中風과 유사한 四肢의 운동장애가 나타나므로 風病과의 감별이 필요하며 또한 痺證을 中風 後遺症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

風驚候(26)

【원 문】

風驚者 由體虛 心氣不足 爲風邪所乘也 心藏神 而主血脈 心氣不足則虛 虛則血亂 血亂則氣并于血 氣血相并 又被風邪所乘 故驚不安定 名爲風驚

【해석연구】

風驚候의에도 風驚邪候, 風驚悸候, 風驚恐候가 기술되어 있으며 이러한 증후는 모두 心氣不足으로 인한 “驚不自安”을 의미하며 후대의 驚悸 怔忡의 의미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風狂病候(44)

【원 문】

狂病者 由風邪入并于陽所爲也 風邪入血 使人陰陽二氣虛實不調 若一實一虛 則令血氣相并 氣并于陽則爲狂 發或欲走 或自高賢 神聖是也 又肝藏魂 悲哀動中則傷魂 魂傷則狂妄不精明 不敢正當人 陰縮而攣筋 兩脅骨不舉 毛痺色夭 死于秋 皆由血氣虛 受風邪致 令陰陽氣相并所致

【해석연구】

風狂候는 “欲走, 自高賢, 狂妄不精明, 不敢見人”의 표현에 의하면 일반적인 증풍의 의미와는 다르며 오늘날 정신분열증에 해당되는 증후라고 생각된다.

多忘候(47)

【원 문】

多忘者 心虛也 心主血脈 而藏于神 若風邪乘于血氣 使陰陽不和 時相并隔 乍虛乍實 血氣相亂 致心脾虛損而多忘

【해석연구】

健忘의 原因에 대해 心脾虛損의 所致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증후는 증풍의 후유증으로 치매 초기에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증풍의 의미에서는 벗어난다.

7) 中風의 治法 및 豫候

風偏枯候(12)

【원 문】

邪初在分腠之間 宜溫臥取汗 益其不足 損其有餘 乃可復也 若不瘡舌轉者 可治 三十日起 其年未滿二十者 三歲死 其湯 鍼石 別有正方 補養宜導

中風候(1)

【원 문】

從其鄉來者 人中少死病 不從其鄉來者 人中多死病

風癱候(2)

【원 문】

汗身軟者 可治 眼下及左右白者 可治 一黑一赤 吐沫者 不可治 汗不出 體直者 七日死 風痺候(10)

【원 문】

時能言者 可治 不能言者 不可治 風身體手足不隨候(130)

【원 문】

診脾脈緩者 爲風痿 四肢不用 又心脈腎脈俱至 則難以言 九竅不通 四肢不舉 腎脈來多 則死也

風半身不隨候(14)

【원 문】

診其脈 寸口沈細 名曰陽內之陰 病苦悲傷 不樂 惡聞人聲 少氣 時汗出 臂偏不舉 又寸口偏絕者 則偏不隨 其兩手盡絕者 不可治也

【해석연구】

偏枯는 언어장애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약 한달간의 치료기간을 제시하고 20세 이전에 발병시 예후가 불량하며, 風癱은 發汗, 身軟 및 얼굴색이 밝을 경우 치료가 가능하나 얼굴색이 검붉게 시시로 변하면서 吐沫, 汗不出 및 신체의 강직이 나타나는 겨우는 예후가 불량하다고 하였다.

風痺의 경우는 예후의 기준을 言語障礙의 有無로 보았고, 半身不隨의 증후에서는 心脈과 腎脈이 나타나고 言語障礙, 九竅不通의 증상이 있을 경우 예후가 불량하며 또한 寸口脈이 양손에 모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III. 考 察

《內經》과 《傷寒論》의 출현이후 兩晉에서 隋唐에 이르기까지 醫學發展上 특징은 경험의

축적에 따른 질병인식의 확대, 方劑의 발달 및 本草學 등의 方面에서 큰 진보가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질병에 대한 인식은 그 범위나 깊이에서 현저한 발전이 있었다.

中風에 관한 文獻은 內經의 《靈樞·九宮八風論》, 《素問·陰陽別論》, 《素問·通平虛實論》, 《素問·風論》, 《靈樞·熱病》 등에 최초로 “薄厥, 大闕, 偏枯, 偏風, 身偏不用, 痺風” 등 주로 意識障礙와 半身不遂를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대개 “內虛邪中”의 입장에서 外邪로 인한 病證의 한 형태로 보았다.

漢代에 이르러 張機의 《金匱要略·中風歷節病脈證并治第五》에서는 “夫風之爲病 當半身不遂 或但臂不遂者 此爲痺 脈微而數 中風使然”이라 하여 “中風”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고 中風의 證, 因, 脈, 治 및 痺證과의 鑑別을 말하였다. 증풍의 원인에 대해서는 《內經》의 外感風邪의 觀點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한걸음 나아가 邪氣가 머무는 부위에 따라 證候를 中經, 中絡, 中腑, 中臟의 네가지로 분류하였고, 處方으로 理氣祛風取汗하는 古今錄驗續命湯을 제시하였다.

隋代 巢元方の 《諸病源候論》에서도 外感風邪의 觀點이 계속 이어지며 《風病諸候》에서 風病의 證候를 여러 項目別로 분류하여 總60候로 기술하였으며 기재된 證候와 내용이 비교적 광범위하다. 따라서 《風病諸候》의 내용중 오늘날의 中風과 유사한 증후를 선별하여 개념, 病인병리, 증상 등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風의 의미와 風病의 범위

風은 四時氣候의 自然的 現狀이며 八方에 분포되어 長養萬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風病은 風氣로 인해 인체가 손상을 받은 모든 증상을 말하며 風氣는 氣虛한 상태에서 風邪혹 冷, 熱을 동반하여 침입하는 邪氣를 말한다.

總 60候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風病을 中風, 痺證, 歷節風, 疼痛性 疾患, 皮膚病, 癩病, 精神障礙 등의 범위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그 특성은 질병 발생시 知覺喪失, 言行狂亂, 喜悲無度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제시되어 있다.

2. 中風의 의미와 병리기전

中風候에서 “中風者 風氣中于人也”라고 서술되어 있듯이 중풍은 외감풍사가 인체에 的中하여 유발된 증상을 말한다.

中風의 發生機轉은 風邪가 皮膚中에 침입하여 營衛의 運行을 방해하므로 臟器의 氣血순환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고, 피부로 發泄되지 못한 外來風邪는 점차 經脈을 침범하여 五臟으로 전변되어 각기 침범한 장부에 따라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

3. 中風의 분류

中風의 分類에 대해서는 《靈樞·熱病編》에서 偏枯, 風痺로 나눈 것이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증후에 따른 中風의 分類방법이다. 《諸病源候論》에서도 《內經》과 마찬가지로 증후에 따라 기술하고 있으며, 다만 《內經》에 비해 훨씬 다양하다.

風邪가 五臟으로 傳變되면 각기 침범된 臟腑의 특성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므로 中風을 五臟風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素問·風論》에서 五臟을 四時에 대응하여 단순히 風에 傷한 시기에 따라 분류한 것과는 다르다. 《內經》의 五臟風은 四時의 風이 五行上 상응하는 五臟六腑의 俞穴에 침입하여 각기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症狀은 五行과에 연계하여 설명되어졌다.

本書의 五臟 中風은 “藏于皮膚之間 內不得通 外不得泄 其入經脈 行于五臟者 各隨臟腑以生病焉”라 하여 風邪가 傳變되어 五臟의 臟腑 및

經絡 계열의 병리를 보이고 있어 《內經》의 의미와는 다르다. 또한 그 내용은 후세의 中風과도 달라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 증후를 五臟에 歸納한 별도의 論述로서 臨床에서 참고할만 하다.

4. 中風의 病理機轉

각 證候들의 病因, 病理에 있어 전반적으로 《內經》以後 “內虛邪中”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나 內虛를 특히 중시하여 居處失宜 飲食不適 愁憂思慮 등으로 臟腑가 虛損해짐에 따라 外에서 血氣가 虛하여 風邪의 손상을 받는다고 설명되어진다.

즉, 血氣俱虛, 血氣偏虛, 血氣虛, 皮肉虛弱, 脾胃氣弱, 胃弱衰損 人體又偏虛, 由營氣虛 衛氣實 등 血氣, 脾胃 및 榮衛의 내적조건이 虛한 상태에서 인체의 抵抗力이 弱화되었을때 外邪의 자극으로 氣血의 運行이 阻滯되어 不能潤養하므로써 風病의 여러 증후가 발생하게 된다.

〈柔風候〉는 血氣俱虛한 상태에서 風邪의 침입으로 風邪가 陽經으로 入할 때와 陰經으로 入할 때의 증상이 각기 다르다.

〈風偏枯候〉는 血氣俱虛하여 腠理가 약한 상태에서 風濕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데 風邪가 分肉腠理 사이에서 血氣의 運行을 저해하므로써 分肉腠理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眞氣去邪氣獨留”하여 偏枯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부분 分肉腠理의 영양공급 장애로 운동장애나 지각장애가 발생하는 데 침입 부위에 따라 증상의 輕重이 달리 나타난다.

〈風脹退〉는 皮肉에 風邪가 침입한 증상이며, 〈風身體手足不隨候〉, 〈風半身不隨候〉, 및 〈風痺曳候〉에서는 脾胃氣弱으로 水穀之氣가 皮膚肌肉을 潤養하지 못하여 皮肉腠理에 血氣가 虛해지고 이러한 때에 風邪에 감수되므로써 증상이 발현된다.

〈頭面風候〉는 陽經에 風寒이 侵入하여 발생 하는 데 頭面은 陽經만이 있어 특히 運動勞役 후 陽氣의 發泄로 理가 약해지고 이때 風邪가 頭面에 치우쳐 頭痛이 발생하며 좀 더 증상이 심해지면 頭眩이 발생한다. 目系와 腦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風邪가 뇌에 침입하게 되면 目系를 당겨서 頭眩이 발생되는 것이다.

〈風口噤候〉와 〈口眼喎斜候〉는 모두 手三陽經筋, 足陽明經筋과 口頰의 關係에 의해 風寒이 頭面의 經筋에 침입하여 頰, 口唇의 筋肉이 緊縮되므로서 발생된다.

5. 中風의 證候

〈風病諸候〉에 서술된 증후는 總60候로 病理機轉에 따라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다. 中風前兆證으로 〈風不仁候〉, 〈風頭風候〉, 〈風頭眩候〉를 언급하고 있으며, 中風의 急性期의 상태에 대해 〈風癱候〉, 中風의 後遺症으로 〈口喎斜候〉, 〈風舌強不得語候〉, 〈風失語不語候〉, 〈偏枯候〉, 〈風痺候〉, 〈風脹退候〉, 〈偏風候〉, 〈風痺曳候〉 등이 있다.

〈風癱候〉는 意識障, 痰盛 및 言語障을 나타내는 증후이며 發汗, 身體強直 및 嘔吐의 증상이 수반되면 예후가 불량하다. 이 증후는 卒中期의 症狀으로 보여진다.

〈柔風候〉는 “四肢不能收 裏急不能仰”이라 하여 사지마비와 함께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증후로 설명되어 있다.

〈風痺候〉는 “身體無痛 四肢不隨 智亂不甚 一臂不隨者”로 표현되는데 이는 意識은 明瞭하고 다만 四肢癱瘓의 증상이 발현되는 증후로 주로 운동장애만을 나타낸다.

〈風脹退候〉는 “四肢不收 身體疼痛 肌肉虛滿 骨節懈惰 腰脚緩弱 不自覺之是也”로서 四肢癱瘓外 身體疼痛, 肌肉에 浮腫이 있고 腰脚의

無力, 肌膚의 感覺이 鈍麻한 증후로 운동장애의 감각장애가 겸하여 나타나는 증후이다.

〈風偏枯〉는 “其狀半身不隨 肌肉偏枯 小而痛言不變 智不亂是也”로 偏側의 肢體運動이 不可能하고 筋肉의 縮과 약간의 통증이 있는 증후로 남자는 左側, 여자는 右側에 빈발하는 특성이 있다.

〈偏風候〉는 “不知痛痒 或緩縱 或痺痛是也”로서 감각장애, 운동장애와 痺痛이 나타나는 증후이다.

〈風痺曳候〉는 “肢體弛緩不收攝也”로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이다.

〈柔風候〉, 〈風痺候〉, 〈風脹退候〉, 〈風偏枯候〉, 〈偏風候〉, 〈風痺曳候〉는 주로 四肢의 운동장애와 감각장애에 관한 증후로 증후 後遺症 가운데서 운동 및 감각장애가 나타나는 類型에 따른 특징적 분류라 볼 수 있다.

中風의 言語障에 대한 言及은 〈風舌強不得語候〉와 〈風失音不語候〉에서 나타나는데, 舌本이 轉運하지 못한 不語와 舌本은 정상적으로 轉運하지만 喉頭의 損傷으로 聲嘶되어 發聲이 안되는 失音을 구별하여 인식하였으며, 특히 〈舌強不得語候〉에서 五臟과 舌難言의 관계를 서술하였으며 五臟 중 특히 “心, 脾” 兩臟이 병의 근본이 됨을 제시하였다.

〈風口喎候〉와 〈風口噤論〉에서 특징적인 것은 經筋과 口頰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口眼喎斜는 “言語不正 而不能平視”라고 증상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頭面風候〉에서 首風의 症狀, 病理, 輕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데 초기에는 頭面多汗 惡風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반복해서 風邪에 접촉되면 心煩胸悶의 증상이 나타나고甚하면 頭眩이 발생한다. 〈風頭眩候〉에서는 頭眩이 오랫동안 낫지 않을 경우 癩疾이 발생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6. 中風의 類似證候

中風과 감별해야 할 類似症狀으로 <風痙候>, <賊風候>, <風痺候> 및 <風濕痺候>, <風驚候>, <風狂病候>, <多忘候> 등이 있다.

<風痙候>는 “口噤不開 背強而直 如發癱之狀”이라 하여 一種의 痙攣性 疾患을 의미하며 오늘날의 “痙病”과 유사하다.

<賊風候>는 동통이 심하여 만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여 병이 오래 지속시 癱瘓을 형성하고 偏枯가 발생하며 附骨疽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는 중풍의 의미에서 벗어난 증후이다.

<風濕候>는 사람이 倦怠無力해지고 意識이 맑지 않고, 병이 오래 지속시 四肢의 弛緩으로 운동이 불능하며,甚하면 失音, 口舌不收하고 兩脚이 痺痛痿弱되는 질환으로 “脚氣”의 유사 질환으로 보여진다.

<風痺候>와 <風濕痺候>는 “痺症”의 원인, 분류, 증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風痺>의 症狀은 “肌肉頑厚 或 疼痛”이다. 風痺는 病邪가 表部에서 裏部로 전변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후로 五痺로 나누어져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다.

<風濕痺>는 “皮膚頑厚 或 肌肉酸痛”으로 즉 피부의 감각이상 혹은 肌肉에 통증이 있는 증상을 이르는 것으로 病期가 오래 지속될 경우 皮膚에서 經絡으로 전변되어 사지의 운동마비가 나타난다. 이 症候는 장기간 지속시 四肢의 運動麻痺가 나타나므로 中風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風痺手足不隨候>는 風寒이 肌膚에 侵入한 初期를 痺라 하는데, 病期가 오래되어 陽經을 손상하게 되면 風寒이 침입하여 血氣의 運行이 遲延되어서 關節이 이완되므로 手足不隨하게

된다.

風痺候, 風濕痺候, 風四肢拘攣不得屈伸候, 風痺手足不隨候, 風濕痺手足不隨候에서는 痺證의 症狀에 대해 언급되어져 있으나, 痺證도 中風과 유사한 四肢의 운동장애가 나타나므로 風病과의 감별이 필요하며 또한 痺證을 中風 後遺症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

<風驚候>, <風狂候> 및 <多忘候> 등의 정신장애에 관한 증후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적인 정신장애의 범주에 포함되며 중풍의 의미와는 다르다.

7. 中風의 治法 및 예후

風病의 症候와 그 病理에 대한 說明은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나 治法에 대한 言及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風偏枯候>에서 치법에 대한 기술이 나타나는데 “溫臥取汗 益其不足 損其有餘 乃可復也.” 하여 <內經>에서 언급된 치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질병의 치료에 대한 원칙만을 잠깐 말하고 處方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書中의 표현에 의하면 “湯熨針石 別有正方”이라 하여 당시 方書가 普遍流行하여 중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징적인 것은 각종 질병의 뒤에 대부분 導引法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補養宣導”를 매우 중시 했음을 알 수 있다.

예후는 증후별로 脈診, 증상에 따라 제시되었으며 <中風候>에서는 節氣에 부는 바람과 中風의 예후를 관련시켜 설명하였다. 예후의 조건으로 汗出, 強直, 吐沫 및 言語障礙의 유무가 중시되었고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中腑, 中臟, 閉證, 脫證으로 구분하여 예후를 분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以上에서 <諸病源候論>의 風病諸候의 分析을 통해 <內經> <金匱要略> 이후 中風의 의미와

그 증후들의 구체적인 병인병리를 살펴보았으나 隋나라 이전의 王叔和의 《脈經》, 葛洪의 《肘後備急方》에 나타난 중풍의 개념 및 병리에 대하여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結 論

巢元方の 《諸病源候論·風病諸候》를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風病은 風氣로 인해 人體가 損傷을 받은 모든 증후를 나타내는 것으로 中風의 意識障礙, 四肢障礙, 言語障礙 증상과 痺證, 歷節風, 皮膚疾患, 精神疾患 및 癩病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2. 中風의 原因에 대해서는 《內經》, 《金匱要略》에서 주장한 ‘內虛邪中’의 外來風邪說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血氣, 營衛 및 脾胃의 虛實의 관점에서 특히 脾胃機能의 虛弱을 강조하였다.

3. 中風의 病理機轉에 대해서는 風邪가 皮膚中에 침입하여 內로는 氣血의 순환을 방해하고 外로는 發泄되지 못함에 따라 經絡臟腑로 전변되어 각기 침범한 臟腑에 따라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인식하였다.

4. 中風의 證候는 〈風癱候〉, 〈柔風候〉, 〈風痺候〉, 〈風脹退候〉, 〈風偏枯候〉, 〈偏風候〉 및 〈風痺曳候〉의 類型別로 나누어 기술하였고, 類似證候로는 〈風驚候〉, 〈賊風候〉, 〈風痺候〉, 〈風濕痺候〉, 〈風狂病候〉, 〈多忘候〉 등이 있다.

5. 中風의 治法은 “溫臥取汗 益其不足 損其有餘”이며 별도로 處方을 논하지 않았고 “補養宣導”를 중시하여 각 증후 뒤에 導引法을 기록하였다.

6. 中風의 豫候는 증후별로 脈診, 증상에 따라 제시되는데 汗不出, 強直, 吐沫 및 言語障礙가 나타날 경우 예후가 불량하다고 보았다.

V. 參考文獻

1. 金賢濟 洪元植：韓醫學 辭典, 成輔社, 서울, 1990.
2. 巢元方：巢氏諸病源候論, 大星文化社, 서울, 1992.
3. 李正來：東醫要諦眞詮·金匱要略譯解精說, 廣林公社學術圖書, 서울, 1992.
4. 許 俊：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91.
5. 洪元植：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4.
6. 金永錫：中風의 病因病理 辨證 및 治療, 한방성인병학회지, 1(2), 서울, 1995.
7. 宋孝貞：內經 風證에 關한 病理學的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4(2), 서울, 1983.
8. 李京燮：中風治療에 對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12(1) 서울, 1993.
9. 李和峻 등：中風證候의 東西醫學的 比較 考察,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4(1), 서울, 1993.
10. 張仁圭：中風의 病因論에 關한 文獻的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2(1), 서울, 1963.
11. 崔恩禎 등：張機의 中風에 關한 考察, 대한한방내과학회지, 6(2) 서울, 1996.
12. 南京中醫學院：諸病源候論校釋, 人民衛生出版社, 북경, 1983.
13. 丁光迪：諸病源候論校注, 人民衛生出版社, 북경, 1991.
14. 胡智聰：中風證治秘法秘方, 사천과학기술 출판사, 성도, 1992.
15. 傅維康：中國醫學史, 上海中醫學院出版社, 上海, 1990.
16. 楊維傑：黃帝內經素問, 台聯國風出版社, 台北, 1970.
17. 郭鶴春：黃帝內經靈樞, 一中社, 서울, 1992.
18. 孫思邈：備急千金要方, 人民衛生出版社, 북경, 1981.
19. 王 燾：外臺秘要, 文光圖書有限公司, 대만, 1964.